

<DFG:soma-e-不忘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

DONT FORGET  
( )!

김유자 이부영 서영  
호내 체리 이상은

@dfg\_bulmangdan

기획 | 김유자  
총괄 | 이부영  
로고 디자인 | 호내  
그래픽 디자인 | 이서영  
퍼포먼스 총괄 | 이상은  
공간 사운드 | 현지혜  
현장 사진 | 배윤아

2026.4.25 - 4.30  
토-일 11:00 - 20:00  
월-목 12:00 - 20:00

공간 루트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6길 19  
19, Yeonseo-ro 26-gil, Eunpyeong-gu, Seoul

Don't Forget ( )!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 자주 놓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몸의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고,  
의식은 끊임없이 외부로 흩어지지만,  
몸은 언제나 현재에 머물러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때로  
불편함이나 통증의 형태로,  
혹은 설명되지 않는 감각으로  
이미 우리를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잊고 있는가?

이 전시는 그 신호에 다시 귀 기울이는 자리입니다.  
각 작가는 자신의 방식으로 몸을 탐색합니다.

욕망이 생성되고 선택되는 과정,  
신체의 변화를 기록하는 고백,  
내면에 쌓여 있던 기억과 감각을 풀어내는 시도,  
반복 수행을 통해 감각과 사유를 확장하는 행위,  
그리고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감응의 순간들.

이러한 작업들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예술이라는 과정은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의 화면을 함께 그려내고,  
같은 공간에서 몸을 접치며 움직이고,  
서로의 작업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자의 작은 방에 머물러 있던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님을  
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픔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살아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신호를 감지하는 일 자체가  
어떤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전시라는 실천을 통해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해지지 않던 것들을 꺼내고,  
드러내고,  
반복합니다.

서툴고, 어긋나고, 때로는 과잉된 방식으로.

그 과정 속에서  
감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칠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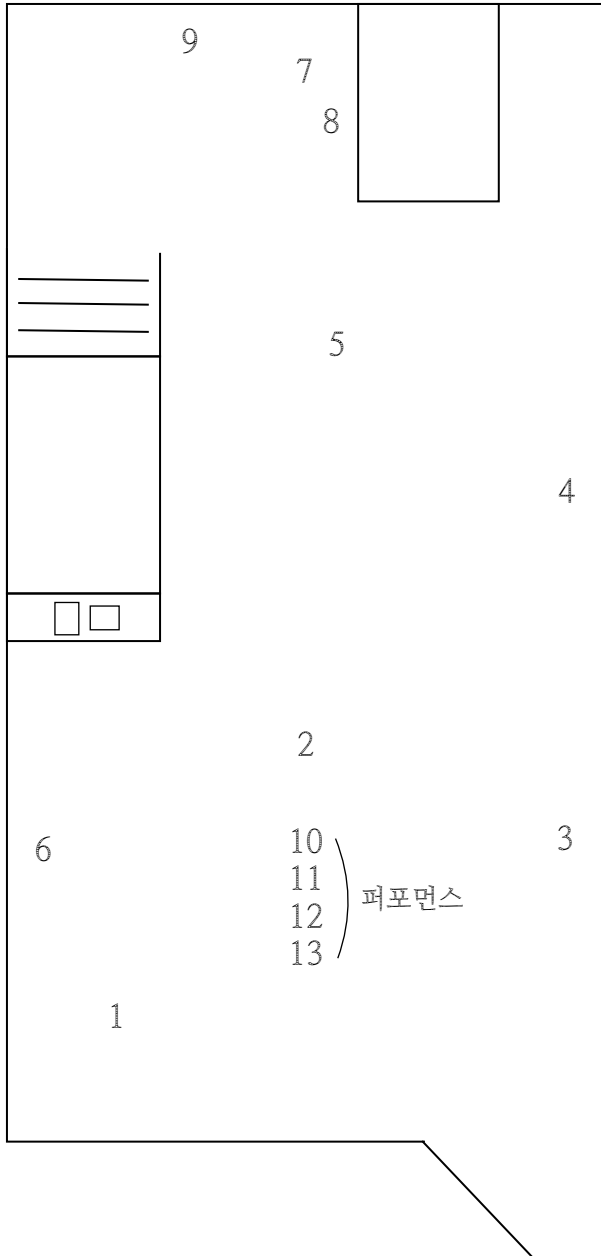
“아, 나 이거 잊고 있었네.”

그 감각은  
설명으로 완전히 붙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Don't Forget ( ).

이 빈칸은  
여러분이 직접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 DFG:soma-e-不忘단



1  
**<신체에 탑승한 정신>, 호내**  
 캔버스에 아크릴, 봉제인형  
 100x100x100cm, 20초 루  
 프 영상, 2026

2  
**<고백>, 서영**  
 종이에 드로잉 천장 설치,  
 15x245cm, 2026

3  
**<보따리 읽기>, 김유자**  
 패브릭에 디지털 프린팅, 영상,  
 설치, 360x90cm, 2026

4  
**<추출현상>**  
**(Meet MJ everyday), 이상은**  
 영상, 조형, 40x40cm, 2026

5  
**<경험노드>**  
**(Node Nods), 이상은**  
 혼합매체, 90x150cm, 2026

6  
**<우주 play with me?>,**  
**체리, 유자, 호내**  
 캔버스에 혼합재료,  
 1: 60x60cm, 2025  
 2: 40x40cm, 2025  
 3: 75x60cm, 2026  
 4: 60x60cm, 2026

7  
**<숨>, 체리**  
 혼합재료, 150x80x150cm,  
 2026

8  
**<동화>, 체리**  
 종이에 색연필, 혼합재료,  
 28x40cm, 2026

9  
**<작은 방>, 체리**  
 캔버스에 유채, 97x130cm,  
 2026

10  
**<[A]나는 당신에 감응하는가?>**  
**(Do [A]I know you?), 이상은**  
 퍼포먼스, 40분, 2026

11  
**<Farewell>, 이부영**  
 퍼포먼스, 10분, 2026

12  
**<작(가 생)업> (At work),**  
**이상은 외 5인**  
 퍼포먼스, 10분, 2026

13  
**<결> (Stand by me),**  
**이부영, 이상은**  
 퍼포먼스, 10분, 2026

## 퍼포먼스 일정

### 메인 퍼포먼스

<[A]나는 당신에 감응하는가?> 이상은  
 4/25(토) 16:00 (40분)  
 4/26(일) 16:00 (40분)

<Farewell> 이부영  
 4/25(토) 17:00, 19:00 (10분)  
 4/26(일) 17:00, 19:00 (10분)

### 합동 퍼포먼스

<작(가 생)업> (At work) 6인 전원  
 4/26(일) 14:00 (10분)

<결> (Stand by me) 이부영 이상은  
 4/25(토) 15:00 (10분)  
 4/26(일) 15:00 (10분)

패션디자이너로서 경험한 산업적 구조의 한계는 AI와 3D를 통해 가상과 실재가 교차하는 새로운 조형 가능성을 탐색하게 했다. 동시에 제작의 본질로서 '손'의 역할을 재발견하며, 기술적 전환과 인간적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을 이번 전시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 〈신체에 탑승한 정신〉

이 작업에서 '정신'은 '나'를 찾는 탐험가로 설정된다. '신체'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 세상을 경험하고 이동하기 위해 빌려 쓰는 장치이자 옷이다. 정신은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 움직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한다.

'1차 욕망'은 감각의 각성이다. 처음 욕망을 인지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들리고 보인다. 귀에 꽃힌 날개는 그 확장된 감각을 상징하며, 아직 방향 없는 자유로운 탐색 상태를 보여준다.

'2차 욕망'은 발화와 분출의 단계다. 욕망은 더 이상 내부에 머물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쏟아진다.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슬은 파편화된 욕망의 단위이며,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신을 흐릿하게 만든다.

'3차 욕망'은 멈춤과 사유다. 쏟아냈던 욕망들을 다시 바라보며, 무엇이 진짜 '나'의 것인지 질문하는 단계다. 떨어지는 구슬들은 지나간 선택과 가능성들이며,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다시 붙잡힌다.

'4차 욕망'은 선택과 집중이다. 하나의 욕망을 집어 들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 눈 앞에 든 구슬은 더 이상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방향이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를 붙잡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고 정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 반복 속에서 '나'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형된다. 신체는 그 순환을 견디며 함께 움직이고, 정신은 그 위에서 끊임없이 확장된다.

### Q. 무엇을 잊었나요?

- 청바지에 컨버스를 신고 다니는 '멋쟁이 할머니'가 되고자 했던 '나'. 지금은 늙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은 두려워하든 말든 공평하게 흐르는데. 그걸 잊은 것 같습니다.

### Q.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요?

- 디자인과 아이디어에 순수하게 열망했던 감각. 마르지엘라에게 질투했던 '나'

### Q. 당신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 살아가는 동안 신체를 통해 끊임없이 욕망을 탐험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찾아가는 끝없는 순환의 공간.

---

드로잉을 하며 작업의 뿌리는 내면의 깊은 감정과 무의식에서 비롯된다.  
무의식의 틈에서 발견되는 패턴들에 관심이 있으며, 작업을 이루는 중요한 언어가 된다.

---

〈고백〉

나의 신체에 발생한 질병이란 사건은 삶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 계기다. 드로잉은 신체 감각과 회복의 과정을 보고하는 고백이며,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신체를 살피는 이러한 반복은 삶을 감각하려는 욕망이기도 하다.

---

Q. 무엇을 잊었나요?

- 그냥 '나'라는 사람과 목소리를 잊고 살았어요. 생각보다 전 하고싶은 것도, 되고싶은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엔 그런 욕망을 삼키고 살아야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래야 하지.. 그런 생각을 왜 했지.. '나'를 자주 드러내고 뻔뻔하게 목소리 내며 살고 싶습니다. 호기심 많은 나를. 그 설렘을 잊지말자 ㅠㅠ

Q.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요?

- 모든 관계에서 오는 사랑  
저에게 친절히 대해준 사람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습니다.

Q. 당신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 생각보다 살만한 곳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외부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세계를 탐구합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마다 자기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려진 고유의 모습과 이야기를 조명하는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 〈보따리 읽기〉

어쩌다 이 작업을 만들게 되었을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기어이 미쳤나 싶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격동이 출발이었다. 내 안에 살고 있던 여자, 남자, 아이, 노인, 동물, 신화적 존재들이 한꺼번에 들끓기 시작했다. 그 지진 같은 격동이 일어나는 동안, 무심히 지나쳐온 사물들과 광경들이 내게 솟아나는 현상을 겪었다. 그리고 정말로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미쳐가는 자신을 더 똑바로 지켜보았다. 그러자 점과 점처럼 끊겨 있던 시간 사이가 촘촘히 이어졌다. 시간이 오래 흐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겨우 5분이 지났을 뿐인 순간들 속에서,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생생하고 또렷하게 나타났다.

이 기이한 체험으로부터 나는 무언가 말해야만 했다. 혼자만의 해프닝으로 지나가기엔 너무 깊이 내 몸의 역사와 닿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성의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았고, 오직 사물과 이미지의 형태로 말을 걸어왔다. 〈보따리 읽기〉는 그 시어(사물)들이 말하는 한 편의 시를 읽어내려는 시도다. 내게 보따리는 사물과 기억,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아직 형체를 갖지 못한 감각들까지 뒤엉켜 단단히 묶여 있던 어떤 응축된 덩어리다.

지진 같은 격동 속에서 산산이 해체된 사물들은 그 틈 사이로 투명하게 다시 솟아났다. 그 투명해진 너머로, 나는 사물들을 관통하는 어떤 ‘배경’을 감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라는 한 몸의 역사와 이 생애를 물려준 더 이전의 역사,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한 감각이다.

맑고 잔잔히 흐르는 물을 그리워하며 그리는 행위를 통해, 움츠러들거나 저항할 필요가 없던 태초 이전의 고요한 기억을 더듬는다.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미래를 지금 여기로 소환하려는 간절한 몸짓이기도 하다.

나는 이 국경 안에 태어났지만, 개개인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사물들을 뽁뽁 싸매고 있던 그 보따리를 펼쳐 나의 모국어로서 휘날리고 싶다.

Q. 무엇을 잊었나요?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요?

- 고요한 빛과 숨결, 4차원 톨비의 천진함, 그리고 우리 모두 땅과 물, 바람으로부터 빚어진 덩어리라는 사실.

Q. 당신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 계곡이나 바다를 보면 그저 뛰어들고 싶다는 충동부터 드는데요. 세상도 제게 그런 곳이에요. 풍덩 뛰어들어 온몸으로 실컷 느끼고 싶은 곳. 물론 그만큼 데이고 산산조각이 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 역시 이 세상을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자,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어떻게 몸과 정신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감각을 규정하는가에 주목한다. 그 제한들을 부정만 하기 보다 한번 따라가보고, 실제로 어떤식으로 나를 가로막는지 느꼈던 감정을 집요하게 따라가려 노력한다.

---

<숨>

순수함이 녹고 그 자리에 어떤 것은 영원히 소멸되기도 재탄생 되어지기도 한다. 그 혼란과 두려움.

<동화>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었지만 동화는 있었다.

<작은방>

평등한 척 하는 곳을 피해

핑핑해보이는 땅 , 그 아래 지하요정

---

Q. 무엇을 잊었나요?

- 더 사랑하려는 노력, 자꾸만 내려놓고, 기대하지 않으려다 타인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노력하는 것을 조금씩 덜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 귀찮음이 모여 저를 갉아먹지 않도록 노력중입니다.

Q.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요?

- 제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준 사람들, 스쳐간 고마운 사람들.  
그 따뜻했던 마음들을 잊으면 제 심장은 얼어 붙을 거예요.

Q. 당신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 추운 곳,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곳.  
차가운 세상 그 안에 따뜻한 행복들을 발견하며 또 살아가는 곳.

신체를 사유와 질문의 핵심 매체로 삼는다. 기술이 팽창하는 시대에 예술이 제안할 수 있는 감각 경험의 확장 가능성을 탐험한다. 특히 퍼포먼스 현장에서 퍼포머와 감상자에게 출현하는 휘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내러티브와 휘발되어 사라지는 일시적인 공연성에 매력을 느낀다.

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달리기와 매일 반복하기, 책으로 묶인 글 읽기, 다수 앞에 면면을 내보이기. 이 움직임들은 앞으로 펼칠 방향성에 대한 선언이자 잊지 말아야 할 분기점이다.

〈추출현상〉 (Meet MJ Everyday)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악 위에 올라타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며 발화한 뒤, 펜을 쥐고 종이에 끄적이다. 무엇이 언제 어디에서 발현되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지 추적한다. 이는 살고자 하는 몸짓이다.

\_일상에서 실천하는 반복 행위는 무엇인가\_

〈경험노드〉 (Node Nods)

몸으로 직접 부딪치고 읽어내며 사유의 균열을 일으킨다. 과학-예술-철학으로 확장해 온 경험은 서로 충돌하는 언어들 사이에서 미적인 태도의 바탕이 된다. 이곳에서 사적인 맥락과 진본 가능성을 지닌 경험노드가 생겨난다.

\_몸으로 어떤 경험노드를 생성하고 있는가\_

〈[A]나는 당신에 감응하는가?〉 (Do [A]I know you?)

관계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감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각자의 언어로 인식한다. 관계 맺은 기억이 경계공간에 나타나며 무엇을 공동의 언어로 내놓을지 가늠한다. 매끈한 기술과 거친 인간 사이에는 안다는 판단에 포섭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_관계의 경계공간에서 무엇을 감응하는가\_

Q. 무엇을 잊었나요?

1. 생(활 세)계
2. 자(기 확)신
3. 나를 살린 사람들  
///
4. I GET TO ART

Q.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요?

1. 헤쳐 온 어떤 잡음들  
(속에서)
2. 건너 온 온갖 시간들
3. 만나 온 좋은 사람들
4. 겪어 온 모든 눈물들

Q. 당신에게 세상은?

1. 애매모호한 곳.  
그래서 다양할 수 있을 곳.
2. 복잡한 곳. 동시에 단순한 곳.
3. 아름다운 곳.  
그러나 이를 자주 잊게 되는 곳.

몸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직접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가장 직설적이 이야기를 내뱉는다. 간혀있던 목소리를 내려던 자아를 잠시 버려두고 표백화된 사회에서 치여가며 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 모순(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

〈Farewell〉

우리는 이미 상당히 잘못된 곳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 같군요. 그래서 저는 당신의 그 편안했던 무관심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의 불쾌한 이야기부터 꺼내 보려고 합니다. 지켜보세요, 당신의 마비된 감각을 깨워드릴게요.

---

Q. 무엇을 잊었나요?

- 2011년 11월 28일

Q. 무엇을 다시 기억하고 싶은가요?

- 앞으로의 새로운 것들을 기억하고 싶다

Q. 당신에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 대부분 소리 없이 배제되고, 근본부터 뒤틀려버린 곳

서로 다른 우주는 무질서 속에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2025년 봄, 오랜만에 만난 세 사람이 하나의 캔버스를 두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이 작업은 시작되었다. 놀이처럼 이어진 과정 속에서 각자의 개성은 충돌하며 예상치 못한 조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순수한 놀이에 목적이 개입해도 이 감각은 지속될 수 있을까?

의도가 더해지자 그림은 잠시 생명력을 잃는 듯했지만, 거리를 두고 다시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그렇게 이 작업은 자유로움과 개입 사이를 오가며, 각기 다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우주로 확장된다.

각각의 캔버스에 여러분이 직접 제목을 붙여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작(가 생)업> (At Work)

6인 단체 퍼포먼스 / 디렉팅 이상은

작품 곁에 작가가 살아 숨쉬고 있던 작업 흔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전시라는 걸 하면 작가들이 의례-하게 될 퍼포먼스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

이를 작가 퍼포먼스라고 부르고자 한다.

At Work - [Art Work] → Artwork

작업 중인 상태인 몸이 - [사유와 실천의 관계 망에서] → 예술작품으로 향하는 여정

<결> (Stand by me)

2인 합동 퍼포먼스 / 이부영 이상은

“아니 친구야, 그런 일이 있으면 통화를 해야지”

결을 내어주는 조건 없는 지지가 인간 관계의 본질을 건드린다.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지할 수 있다.

## Thanks to

-

과학의눈

김성준 쌤 with PDC Work

리마인더 그룹

민영, 정희, 유신

박현정 작가님 with studio P.I.E

소마유즈 김유동 선생님

소영, 미래, 수진

시우님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영민이형

이은지 작가님

읽고추기

정림, 천기

지은쌤 with 망원정클래스

진영오빠

코알라

항상 지지해주시는 차은실님



@dfg\_bulmangdan